

2021 A+학생들의 A+공부비법

우수 학생의
경험담과
공부 노하우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지침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책을 펴내며

교육혁신원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자 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 대학에서 먼저 대학 생활을 보낸 선배들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일반 학습관련 서적과는 달리 실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심어린 조언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12편의 에세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외대를 졸업하거나 고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ow to Learn'을 주제로 시간관리 전략, 전공/교양의 공부 방법, 리포트 작성, 발표방법, 시험 준비전략 등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적합한 학습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공부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뒤따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ontents

■ 책을 펴내며

■ A+학생들의 A+공부비법

비효율적인 대학생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17학번 김보영

학교 공부에 진심을 다했던 화학과 선배의 시험 공부법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8학번 김수현

요령 없는 사람의 학습 노하우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17학번 김한울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전공 17학번 김혜완

현명하게 4년을 보내는 방법

국제지역대학 남아프리카어학과 18학번 박수연

성실함이 성공의 핵심이다

영어대학 EICC학과 18학번 윤혜원

전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서양어대학 노어과 18학번 이영호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방송·영상·뉴미디어 전공) 17학번 이유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남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17학번 이현주

깊이있는 대학수업이 되도록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17학번 전해린

학점 관리도 전략적으로!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18학번 정시영

공부는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7학번 정윤휘

	비효율적인 대학생활
	김보영_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17학번

0. 들어가며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제 지난 5년간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경험, 다양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던 즐거운 기억,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며 기분이 묘합니다. 나의 대학생활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건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나름 치열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활동들 중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들도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은 크게 쓸모가 없는 활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제 대학생활을 완성시켜주었고, 인생 중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경험들을 뽐뽐하게 쌓을 수 있는 시간은 대학시절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생이라는 이름 하에 각자만의 비효율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자산처럼 많이 쌓으시기를 바라며 제 대학생활의 일부분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학점관리

1-1 동기부여

저는 재수를 해서 외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더 높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한 학기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밝은 말을 지키고 싶은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막상 학점을 잘 받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학점을 잘 받고 싶은 동기는 다르겠지만 '요즘은 학점 높아봤자 쓸모없어'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한 번쯤은 스스로의 동기를 찾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높은 학점 덕분에 이중 전공을 선택할 때나 교환학생을 선발할 때 유리할 수 있었고, 재수강을 안 해도 되니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3,4 학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따라오는 덤이었습니다.

1-2 수강신청

한 학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 수강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의 계획을 짜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은 고민하며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단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1,2 학년 수업을 수강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뒤늦게 들으려면 시간표도 꼬이기 때문에 학년 필수 수업은 꼭 시기에 맞춰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2 학년 때에는 너무 적은 학점보다는 17~19학점 정도로 한 학기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본 전공과 이중 전공으로 시간표가 채워지고, 수업의 난이도도 높아지다 보니 학점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들어야 하는 수업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제때 수강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강의평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맞는 수업을 고르되, 하루에 3개 이상의 수업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험공부할 때 한 과목 정도는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시간표를 완성하지 못해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수강신청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 수업 수강

좋은 성적의 가장 기본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므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출결은 반영 비율이 낮더라도 플러스와 제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빠지면 수업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므로 최대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출석 고박고박 하고 과제만 다 제출해도 기본적으로 비뿔은 맞을 수 있는 수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클래스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시험공부

제 시험공부 방법에는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과목을 기본적으로 3회독을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1회독 때에는 모든 자료들을 활용하여(수업 피피티, 교재, 필기) 한 번씩 이해하며 읽습니다. 읽으면서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다시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곳에 정리합니다. 가벼운 단권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회독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량이 많습니다. 내용을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구조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틀을 이해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에 가장 필수적입니다. 단원별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느 부분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 시대의 흐름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등 공부해야 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리는 노트에 해도 좋고, 노트 북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한다면 구글 독스 추천드립니다) 1회독만 마쳐도 마음이 든든하지만 2회독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기는 힘듭니다. 이해와 암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2회독은 시험 전 날 했습니다. 정리해 놓은 걸 다시 보며 머리에 집어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암기의 기본은 역시 이해입니다. 암기를 하려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시 보이고 이때는 수업 자료를 다시 보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3회독은 쉽습니다. 시험 보기 바로 전 1~2시간 동안 빠르게 다시 보는 것까지 마치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개인 성향이나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 회독의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의 회독은 1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외 활동

2-1 교환학생

외대인으로서 가장 좋은 점은 교환학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본전공인 베트남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2번 베트남에 다녀왔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어 전공이라면 언어 실력 향상과 새로운 경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아졌지만 아너스, 7+1, 코트라 해외 인턴, 자비유학 등 다양한 옵션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2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 시간이 많으니 학기 중에 하나씩 혹

은 방학마다 하나씩이라도 차곡차곡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 때는 막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인턴을 해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인턴을 위해서는 대외활동 등의 경험이 필요하고,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필요하는 등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 해놓는 게 좋습니다.

3. 마음가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ask와 responsibility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내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학생들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함에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마음이 편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 때는 주어진 일만 하다가 자율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때가 오니 저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꼭 해야 되나?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다 보면 그 이유가 너무 많아 시작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깊게 고민하는 것보단 일단 해보자!라는 도전정신을 가지면 더욱 풍부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함에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며 알찬 대학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공부에 진심을 다했던 화학과 선배의 시험 공부법
	김수현_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8학번

0.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18학번 김수현입니다.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준비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졸업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이번 기회에 후배님들께 제가 교내에서 시험준비를 하였던 공부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강좌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홀로 시험 준비와 학교생활을 해 나가며 여러 어려움을 느끼셨을 후배님들께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부량을 늘려주는 시간관리하기

시간관리는 중요합니다. 시간관리를 함으로써 공부계획을 달성하거나 수정하여 시험 전까지 원하는 공부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3시간씩 8등분 해 시간별 목표를 정하였고 이를 통해 직관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시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날 할 자율적인 공부를 먼저 한 후에 과제나 기타 업무를 처리해야 매일 공부를 조금씩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수업만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할 일을 분배하고, 주말을 활용하면 여유로운 그 다음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화학과 전공수업과 일반교양수업의 공부방법

저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화학과에서 4년간 시험을 치렀습니다. 일반 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은 이론암기 후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무기화학, 생화학은 철저히 이론의 암기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화학은 생소한 개념이 많고 스스로 메커니즘을 학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 때 한 필기를 바탕으로 매주 배운 내용에 대해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해 본인만의 방법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유기화학에서 오프라인 시험의 경우 학기당 4번씩 시험을 치는데 매 시험마다 배운 내용이 누적되므로 공부한 자료를 잘 보관하여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전공들의 경우에도 이론 수업 중 배운 내용을 매주 워드나 한글로 정리한 뒤 시험 3주 전부터 이를 반복해서 읽으면 쉽게 복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양 수업은 전공 이론공부를 하듯이 배운 내용을 매주 정리하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 복습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 시험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매주 정리해 둔 내용이 없다면 전체 내용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눠서 공부 계획을 세워 보고 시험 기간 동안 매일 여러 과목을 조금씩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때 전날까지 외웠던 것을 복습한 뒤 그 날의 분량을 공부해야 시험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준비는 복습과 반복이 전부

대학교에선 학기당 두 번의 공식적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약 한달 반의 시간차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학과 특성상 매주 치르는 쪽지시험이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는 매주 복습을 하면서 시험공부를 시험 직전이 아니더라도 매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 시험 2~3주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목별로 시험 준비를 하여도 매우 경쟁이 치열한 과목이 아닌 이상 다들 비슷한 시기에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매 주 배운 내용을 주에 1회씩 워드로 정리 혹은 본인만의 방법으로 복습하였던 사람이라면 한꺼번에 방대한 양의 전공 혹은 교양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를 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가며 복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한 것을 반복하는 횟수와 집중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시험을 한참 많이 남겨둔 시기에 열심히 공부한 과목도 시험 전날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벼락치기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전에 시간을 들여 전체 개요를 아는 상태에서 반복학습을 한 것과 벼락치기로 시험 당일 새벽에 중요한 것만 훑는 것은 시험장에서 공부한 것을 기억해내는 범위와 질이 다르므로 매주 혹은 시험 2~3주 전부터 사전에 공부하고, 반복하고, 시험 전날 특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레포트 작성

학교생활 혹은 대외적인 상황에서 레포트를 자주 작성하게 됩니다. 레포트는 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 때 학생의 주장은 글 서두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거는 공신력 있는 소스에서 참고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마다 예시를 들고 글의 마지막에 주장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결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나무위키 등 위키피디아는 모두가 수정할 수 있는 신뢰성 없는 소스이기 때문에 레포트의 참고문헌으로 활용해선 안 됩니다.

레포트는 작성 기간을 가능한 오래 잡고 다른 날짜에 수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수정엔 글을 인쇄하여 종이로 보면 오타자나 보완해야 할 점이 눈에 더 잘 띄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쇄해서 최종 검토를 해 보면 수정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필수 교양수업인 미네르바 인문학 강좌는 학생이 논리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이를 수강하면 대학생들과 이후 글쓰기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발표방법

여러 교양 수업 또는 전공수업에서 발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발표는 크게 준비과정과 발표 당일로 나뉘어 지는데요, 팀을 구성한 발표의 경우 팀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자료조사, 발표자료 제작, 발표자의 역할을 팀원끼리 정해 발표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자료조사자는 발표자료를 제작하는 팀원이 충분히 자료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의 정리를 보기 쉽게 해 주고 적절히 풍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발표자료를 제작하는 팀원은 프레젠테이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의외로 팀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의 역할인데요, 발표를 맡은 팀원은 발표 준비 전 과정에 걸쳐 자료조사의 내용이나 발표 슬라이드의 구성에 대해

속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말하기 연습을 통해 발표 당일 대본 없이 유창한 발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발표 직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답변하려면 발표자는 사전에 모든 발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주제에 대한 본인만의 의견 혹은 팀원 전체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개인 발표의 경우는 위의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본인의 주장을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독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스트레스와 막연한 두려움

끝으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후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과 공부를 하는 중에도 스스로 맞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학과 공부가 본인의 미래를 위한 스펙의 일환과 본인이 학과 공부에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학과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얻어 더 나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여러 분들을 응원합니다.



요령 없는 사람의 학습 노하우

김한울_서양어대학 독일어과 17학번

본 전공 독일어와 이중전공인 경제학에 대한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학습팁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습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공부하고 적용해보는 것이 유일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나온 학습 관련 노하우는 지름길을 바라는 분들께는 적합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1. 처음 배우는 전공어, 어떻게 공부할까?

1-1. 마음가짐

저는 독일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했습니다. 이미 잘하는 동기들도 많았고 수업 진도가 벅차기도 했지만, 불리한 환경과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좌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워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잘 소화한다면 빈틈없이 실력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선,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만을 목표로 세우지 않고 전공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후배님, 특히 1학년 후배님께 너무 기속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명 1학년 때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효능감보다는,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쓸 수 없던 문장을 오늘은 쓸 수 있다는 신기함과 성취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렘은 시작단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조금씩 채우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니,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을 기준으로 즐기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이 느린 편인 저도 나름 차근차근 잘 해왔으니, 후배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2. [전공어 시험공부] 동의어와 반의어, 핵심 표현 중심으로 확장하기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공부가 가장 쉽기도, 막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교재에 나온 내용을 모두 암기하면 어느 정도 시험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학점은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응용능력을 요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동의어와 반의어 공부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확장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전공어 실력 자체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과의 핵심 문법 포인트,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정리해본다면 시험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 방학 활용법

방학에 부족한 언어 실력을 채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고 배움을 체화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기가 끝나면 지난

학기에 배운 문법, 어휘 등을 한 노트에 요약해서 정리했고 이동시간을 이용해 한 번씩 가볍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30분-1시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방학 내에 정리하실 수 있고 이런 공부 가 누적되면 다음 학기 시험 준비 시간 절약, 나아가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경제학 공부

2-1. 수학을 못 해도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내내 수학으로 고통받았던 저는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중전공은 상경계열로 하고 싶은데, 배우는 과목을 보니 통계, 경제 수학 등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것 같아 겁부터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보다는 이론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그래프 이해 등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 들은 수학 때문에 상경계열 이중전공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경제학 시험공부] 시험 유형 파악-> 전개도-> 골고루-> 반대로

언어 시험에는 정확한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답이 있는 경제학 전공 시험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공부 전, 시험 유형을 파악해서 공부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객관식은 다독하기, 이해 위주로 공부했고 단답형은 핵심 개념 위주로, 주관식은 도출과정과 적용 사례를 보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일지를 파악해서 전개도를 그리고 공부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시험문제가 몇 문제인지, 배점을 고려해서 공부 분량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문제가 총점 50점에 35문제이고 배점이 1, 2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1점 20문제, 2점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2점에서는 약간 더 어려운 개념이나 그래프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반드시 출제될 주요 내용을 문제 수에 맞게 파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내용을 숙지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적용해보는 디테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관세인하의 효과만 설명하셨다면, 관세인상의 효과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적용해봐야 합니다.

매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벅차기도 했고 가끔은 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성적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자신감과 흥미를 잃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한 노력을 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때때로 결과에 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축적되면서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후회 없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리포트 쓰기

3-1. 양식 맞추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양식 맞추기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춤법,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방법 등 글쓰기 규율을 반드시 지키고 교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양식(페이지 수, 글자 크기 등)에 벗어나지 않는 노력만 하셔도 형식상 감점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3-2. 개요의 중요성

생각나는 대로 바로 글을 적으면 나중에 서론, 본론, 결론의 비율이 맞지 않거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글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분량 배분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페이지의 글을 써야 한다면, 서론 0.5 분론 2.5 결론 1 이렇게 전체적인 분량을 보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통일감을 주기 위해 하나의 주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글을 쓰신다면, 글 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량을 정하고 목차를 구상하고 어떤 근거를 들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셔야 완성도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목과 목차, 소재목들이 글의 가이드이므로, 제출하시기 전 글의 맥락을 검토하면서 한 번 더 다듬는 것을 추천합니다.

3-3. 참고문헌 공신력 높이기와 생각 녹이기

같은 내용이더라도 참고문헌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실리는 힘이 다릅니다. 블로그, 위키피디아보다는 논문같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논점이 드러나지 않는 리포트는 자료조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우들과 같은 자료를 찾았더라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어떻게 학습 내용과 연관 지었는지를 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학생활팁: 교환학생, 현장실습, 도서관 활용법 등

-**HUFSAbility**: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진로상담, 동문특강 등)을 진로 탐색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채용, 대외활동 및 다양한 공고들도 올라오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환학생, 파견학생**: 미래에셋 교환장학금 등 찾아보면 다양한 교외 장학제도가 있고 종합정보시스템->국외 교류->귀국보고서 검색에서 국가별, 학교별 선배들의 국외 교류 팁과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국외학점인정과 관련된 정보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과 인턴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UFSAbility 하단, 바로 가기 코너에서 현장실습을 누르시면 연결되는 현장실습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및 교외 장학금**: 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장학공지란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올라오니, 장학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e-Learning에 들어가시면 토익, 토플 등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논문이나 원문이 필요하시면 **학술 DB**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도움 없는 성취는 없다.

제가 얻은 좋은 결과는 온전히 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저를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몫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를 믿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해주었던 학우들이 기억에 남고 아직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공부를 하다가 안일함을 느낄 때쯤 질문해 준 덕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고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도 다른 학우들을 동료로서, 아는 것은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섞인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외대인이 되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김혜완_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전공 17학번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융합일본지역전공 17학번 김혜완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후배님들께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입학하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졸업하기’ 라는 다소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꼭 그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만큼 성실히,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제 마음가짐에서 나온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잊지 않고 4년간 대학생활을 해오다 보니 졸업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글을 쓸 기회도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개의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쓰는 기회를 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 ‘저런 공부방법도 있구나’ 하는 참고 정도로만 읽어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저는 입학 전부터 전공 언어인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였고, 이중전공이나 교양 과목의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유리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1. 수강신청과 효율적인 시간관리법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한 학기에 들을 학점도, 시간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 대학생활의 가장 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정한 시간표 그대로 수강신청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수강신청 전에 플랜B, C를 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통학생인지 아니면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통학과 기숙사 모두 경험이 있는데, 기숙사에 거주할 때는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전 수업을 좀 더 추가하고 남은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학과 사무실 조교로 일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해당 학년에 배정되어있는 필수 수업들을 그 학년에 끝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1학년 때 권장되는 필수 교양이나 각 전공의 전공필수 수업은 되도록 수업과 학년 및 학기를 맞춰서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수업들을 뒤로 미루면 2학년부턴 선택하게 되는 이중전공 수업 등과 겹쳐 시간표 구성이 어려워지고,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부법

1)수업시간 집중이 반이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기’는 공부법이라고 소개하기엔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업이 지루하거나, 그다지 흥미가 없는 과목이라거나, 아침 수업이라 잠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많은 이유들이 집중을 방해하지만, 여차피 시험기간

이 되면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왕 듣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면 그만큼 시험기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렵지만, 교실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 저는 늘 수업시간보다 조금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앞에서 2~3번째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많은 교양강의는 뒤에 앉을 경우 교수님의 필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자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2)복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복습은 제가 4년간 학교를 다니며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과목이라면 7~8주 분량의 수업 내용을 공부하여야 하는데, 복습이 되어있지 않다면 시험기간에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을 정리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리 정리를 해둔다면 그 시간을 정리본을 통한 공부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수업이 끝난 후 수업 정리를 하는 방법은 저의 이중전공 공부에 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중전공을 법 과목을 공부하는 국가리더전공을 선택하였는데, 법 과목의 특성상 매 수업에서 다루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중간고사까지의 시험범위만 해도 상당합니다. 이것을 시험을 앞두고서야 공부를 시작한다면 범위를 1회독하는 것조차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휘발되기 전에 미루지 않고 워드를 이용하여 요약본을 각 과목마다 만들어 시험기간에는 그것을 위주로 반복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목차를 만들어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요약본을 만들었지만 각자가 가장 편한 형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자투리시간을 알차게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자주 노출되는 것만큼 좋은 공부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 언어인 일본어는 저학년 때 한자를 외워 어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듣기 실력에 비해 읽기와 단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다루는 단어들을 그 수업이 끝나면 엑셀을 이용하여 단어장을 만들어 늘 가지고 다니며 통학길이나 수업 쉬는 시간 등 자투리시간에 틈틈이 보며 암기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통학에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큰 편이었는데 이 부분을 자투리시간 활용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자투리시간이 모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투리시간을 찾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4)시험공부와 과제는 미리미리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해결해야 할 과제나 발표 준비 등 할 일이 많아져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시험공부까지 더해져 시간이 늘 모자란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최소 3주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3주 내내 시험공부를 한다면보다는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 안에 급히 처리해야하는 과제나 쪽지시험 등이 생겨도 쫓기듯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관리에 저는 스마트폰 달력 어플을 이용하였지만 다이어리나 플래너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할 일이나 공부 계획을 관리한다면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로운 시험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학교생활에 도움 될 만한 팁

1) 학교 홈페이지 자주 구경하기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프로젝트나 강연,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틈이 생길 때마다 확인해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학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하기

저는 대학에 입학하여서는 고등학생 때 입시 공부로 인해 소홀했던 독서를 하고자 거의 매일 학교 도서관을 드나들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전부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는 신간 도서가 나오면 도서관에 구입 희망도서로 신청하여 읽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어 책이 도서관에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새 책을 가장 먼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신청하여 대학생활 동안 많은 책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글을 마치며

다들 학점이 학교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학점이 중요한 요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저의 초점은 학점과 학과공부였지만, 여러분이 대학생활동안 하고 싶은 것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매일 조금씩, 그렇지만 미루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첫 걸음이 있고 그 걸음이 모여 형태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맞춘 초점을 위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명하게 4년을 보내는 방법

박수연_국제지역대학 남아프리카어학과 18학번

1. 전공공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는 법을 궁금해하면서,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는 어떻게 구하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1학년 때는 족보가 없으면 A+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족보에 연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그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학교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농담까지 다 적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 틈 없이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야만 수업의 흐름을 끊김이 없이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을 온전히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역시 날이 더워지면 졸음이 오기도 하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끝나있을 정도로 집중력이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대학 전공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과 달리 인터넷 강의를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했고, 저는 '필기'를 통해 설 틈 없이 손을 움직이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적어놓고 나면, 집에서 복습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고, 다시 찾아봐야겠다'라는 틀이 잡히었고, 수업 시간에는 모르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숨이 턱 막혀도, 일단 필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교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수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필기를 통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 하였고, 수업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역시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필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법은 사람마다 달라서, 저의 방법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 시험 준비는 어떻게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벼락치기 해도 성적 잘 받을 수 있는가요?'

실제로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강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시험 기간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을 막론하고, 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분명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빠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교양/전공과목을 통틀어서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는 1회 독 한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달 후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8주 치의 내용을 단시간에 숙지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수업내용을 당일 모조리 복습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매일 시험 기간처럼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복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복습 기간을 일주일로 정해두고, 일주일 내에만 복습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 내용을 복습하지 않은 채로 다음 주 수업을 듣게 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지난주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2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에 오면 결국 2주분의 수업을 다시 공부해야 비효율성이 발생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배운 과목 중에 복습하지 않은 과목은 없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간이 흘러 시험 기간이 되어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현명한 대학 생활을 하는 법

취업이 힘든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최근에 후배들을 만날 때 어떠한 말을 해주면 좋을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이 부분에 있어 후회도 많았고, 후배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작성해보려 합니다.

현명한 대학 생활을 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성적 관리와 직무 준비의 병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 학점 관리에만 몰두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전공 공부에만 몰두했고, 상대적으로 대외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서야, 조금만 마음에 분야를 막론하고 대외 활동이면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자격증 공부 역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격증은 모든 갖춰야 한다는 마음에 한동안은 자격증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학점 관리를 잘하고, 보유한 자격증 개수가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직무에 대한 고민과 '내가 선택한 직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직무에 대한 고민을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6개월 동안 직무와 산업군 선택에 방황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직무에 대해 고민한 시간 역시, 더 나에게 맞는 곳을 찾기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대학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방황했던 시간을 다른 시간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만큼 언젠가 후배가 생긴다면, 계획적인 직무 방향을 정해 4년간 더욱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A+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 공부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멀리 내다보고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무와의 연관성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생활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현명한 학교생활을 통해 훗날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멋진 경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실함이 성공의 핵심이다
	윤혜원_영어대학 EICC학과 18학번

0. 들어가며

어느덧 8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공부하면서 힘든 적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원하는 성과를 이뤘을 때 느꼈던 성취감만큼 값진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후회하지 않도록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었고, 공부가 저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잘 맞아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지식이 쌓여가는 게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공부 방법이 누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수업 선택 및 계획 세우기

한 학기 동안 들어야 할 수업들인 만큼 시간표를 짤 때 항상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보며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보통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혹은 평이 좋은 강의들을 수강하기보다 저에게 잘 맞는 강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수업방식, 평가방식, 과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고 될 수 있으면 팀별 과제가 포함된 강의는 제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게 편했고,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강의계획서와 에브리타임의 강의평가를 참고하면서 저에게 맞는 수업들을 선택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수업의 일부이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플래너에 간단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목표한 일들을 다 완료한 날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날 하고자 하는 일들만 작성해두면 괜히 여유가 있다고 느껴져서 나태해지고 계획한 일들마저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일들을 적어두고 그 계획 중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도한 계획으로 압박감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수업에 임하는 태도

저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의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잠이 매우 많은 편인데 1교시가 있으면 알람을 여러 번 맞추고 일부러 잘 일어나도록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잘 정도로 철저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잘 봤는데 출결 때문에 점수가 감점되면 억울하겠죠? 또한 결석을 하면 그날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공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소한 내용까지 가능하면 모두 필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의 PPT가 제공되어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런 자료가 주어진다 한들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수업 때 최대한 집중하여 내용을 머릿속에 바로 흡수하고자 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께 여쭙보거나 직접 참고 자료들을 따로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3. 시험 준비

제 전공은 EICC학과이기에 이론 수업을 제외하면 통번역 실습 시험이나 말하기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양이나 이중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유용했던 시험 준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강의이든 수업을 듣고 나면 다음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복습하고 노트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과제나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는 다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 정리였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을 모두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내용의 흐름을 간단하게 떠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A4 종이 가운데에 세로로 줄을 그어둔 다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의 순서로 강의자료, 교수님의 설명, 교재 내용을 모두 한 장에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글씨도 작게 써야 해서 굉장히 지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적으면서 내용을 상기하고 흐름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주차별로 노트 정리를 하면 시험을 보기 전까지 대략 5~7장이 나옵니다. 시험 전까지 그 종이들만 계속 보면 돼서 많은 자료들을 뒤적거릴 필요도 없고 내가 정리한 내용이기 이해도 더 잘됩니다. 특히 가운데에 줄을 그었다고 했는데, 줄을 기준으로 좌우 면마다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그 위치까지 기억하기에 용이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정리한 종이를 보면 내용이 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까지 기억이 납니다. 시험범위가 많으면 시험을 풀다가 특정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그 위치를 떠올려보면 내용까지 저절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예시나 참고 영상 같은 건 수기보다는 워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고 나면 시험 전까지는 그 종이들을 읽으면서 달달 외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도 나름 고민하면서 외웠고 실제로 생각했던 게 시험문제로 나온 적이 많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리포트 작성

시험 준비할 때벼락치기를 하지 않았듯이 리포트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확고하게 정해주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광범위한 주제를 하나 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정하기 전에 먼저 관련 논문이나 기사들을 살펴 보면서 주제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되도록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식상한 주제는 피하되,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저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풀어쓸 수 있는 주제여야 정확하고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조사입니다. 1학년 때부터 어떤 리포트를 쓰든 학술논문과 언론 기사, 그리고 학술 서적만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엔 도서관에서 직접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보통 논문을 많이 활용하는데 학술 서적 역시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론 기사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공신력이 있으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리포트를 작성하든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리포트는 항상 제출하기 하루 전까지는 완성하고, 제출 당일에 여러 번 읽어보면서 검토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띄어쓰기와 문장 형식, 맞춤법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들을 모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완벽해 보여도 하루 자고 일어나서 보면 오타나 실수한 부분이 눈에 잘 띕니다. 딱 한 번 리포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제출하고 보니 오류가 많아서 미리 해 둘걸 후회한 적이 생각나네요.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꼼꼼히 확인하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팀별 과제

팀별 과제를 선호하지 않아도 8학기 내내 아예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팀별 과제를 수행해야 되면 이왕 하게 된 거 팀원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인데 팀플을 할 때만은 대부분 먼저 나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저만 겪었던 한정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학우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하지만 먼저 의견을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팀원을 이끌어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팀 프로젝트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모든 결정은 팀원들과 상의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입학하고 나서 아마 새내기 때는 '학점 신경 쓰지 말고 놀 수 있을 때 충분히 놀아라'라는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학년 때 형성해둔 공부습관이 남은 학기 동안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몸소 느낀 바이기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되, 공부는 항상 성실하게 꾸준히 하셨으면 합니다.

제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잘 맞는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 방식이 누구에게는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실함만큼은 공부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저의 방법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공부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토대로 성실하게 공부하여 원하는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전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이영호_서양어대학 노어과 18학번

1. 여는 말

1학년 입학 당시에는 내가 과연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이렇게 후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따로 취업준비를 하던 학생도 아니고 바로 졸업 한 후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어 4년 내내 한 것이라고는 그나마 좋은 학점을 받은 것뿐이라 제가 후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학점을 잘 받았는가에 대한 조그마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세이를 작성하기에 앞서 2-3년전에 내가 학교 공부를 하며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동기들과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언어과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을 어떻게 따라 잡나' 등과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이런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고 충분히 노력만 하신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팁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언어 공부법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모두 다같이 2주 가까이 잠도 못자며 텍스트를 달달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20명도 안되는 수업에서 A는 2-3명밖에 받지 못하고 다들 치열하게 암기해서 들어가는데 왜 각자 다른 점수를 받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들 암기를 못해서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점수가 갈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4년간 학교를 다니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소한 차이를 만들었고 항상 저에게 A를 가져와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제가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학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은 한국어 때문에 그렇게 암기를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 객관성을 담보하진 못하지만 실제로 2-3학년만 되어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지문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해석을 시키면 해석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항상 해석을 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라고 항상 시키셨는데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은 권력을 쥐게 한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같은 경우 언어공부를 할 때 위와 같은 문장을 본다면 '권력'이 무슨 뜻인지 한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를 곱씹어 보면 저 문장의 의미가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러 사례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국가'와 '사회'의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국민'과 '시민'의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런 단어들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단어들을 중구난방 사용하게 되고 원래의 문장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서 번역시험을 봐도 점수가 깎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암기는 기본으로 하되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고심해서 저만의 번역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실 때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두시면서 공부한다면 나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국가리더전공 공부법

2학년 1학기에는 경제학을 이종으로 선택했었는데 2학기에 국가리더로 바꾸어 공부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국가리더 수업은 다들 열심히 하시기에 학점 따기가 어렵다는 소문도 있어서 처음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 B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부 A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언어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법학 공부법에서도 이 차이가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이것이 국가리더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게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국가리더 수업에서 B를 받은 수업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만점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도대체 왜 깎였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어디서 점수가 깎인 것인지 여쭙 봤습니다. 교수님은 “잘 쓰긴 했는데 법학 답안지는 이렇게 쓰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열심히 썼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집에 가서 바로 법학 사례 문제집을 사서 가볍게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쓴 답안지는 법학 답안지로서는 0점짜리 답안지구나.’ 이게 무슨 말이나면, 다른 수업에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할 때 최대한 아는 것을 길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에게 이만큼 많이 공부했다고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C+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쟁점을 잘 뽑아내고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논리적으로 목차를 넣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안지에 다수설이 아닌 소수설을 적용하여 적더라도 제3자가 읽어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글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 공부법은 발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점수가 있는 수업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저만의 방법은 자료정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흐름에 따라 발표자료들을 배치했습니다. 목차를 넣어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팀플레이를 할 때 자료정리를 부탁하면 그냥 나무위키나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붙여넣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ㅠㅠ) 이걸 첫번째로 하되 나중에 수정할 때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문장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고

치고 읽으면서 발표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언어 공부법에서도 이어지는 것인데 한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은 여러 분야의 법을 다루고 있기에 배경지식도 넓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상법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경제 용어가 너무 많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경제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히나 법은 단어 하나 하나 말이 매끄럽고 이해가 되게 써야하기 때문에 시험에 앞서 예상문제를 생각해서 답안지에 적어보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목차 다 넣어서 문장 생각해 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만 쓴 것 아닌가 싶지만 몇일동안 꼼꼼히 생각해 봐도 위에 적은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공부법으로 제시했는데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이유림_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방송·영상·뉴미디어 전공) 17학번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면접 때 들었던 질문입니다. 본인의 장점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면접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태도입니다. 같은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꽃을 피우는 힘이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쟁력은 ‘태도’입니다.”

인생에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8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태도가 정답은 아니기에 취할 것만 취하시고, 본인만의 태도와 경쟁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 A+ 비결

1. 학습의 방향성 정하기: 정해진 답 vs 나만의 생각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정해놓은 답을 선호하시는 반면, 정해진 답과 더불어 학생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답안을 선호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답안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면 학점 관리의 한걸 수월해집니다. 한마디로,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한다면 방향성 있는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야하는 시험이라면 미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이 어떠한 답안을 선호하시고, 어떤 답안에 좋은 점수를 매기실지는 수업 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전주나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하실 때 학습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준비한다면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을 위해서는 공부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중간고사 직후 피드백하기

제 공부비결의 8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오면서 저는 곧장 메모장을 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의견 묻는 문제가 꽤 나오고 배점도 큼. 기말은 이런 부분 준비해야 할 듯”, “시간 부족했음. 시간에 대한 대비 필요함”, “디테일한 부분 보다는 큰 개념에서 주로 나옴” 등과 같이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긴 피드백은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학습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 학점에 비해 굉장히 짧고 효율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타겟팅’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도 시험 가능성이 있거나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꼭 표시를 하고, 중간고사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기말고사 대비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은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다소 부진했던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강추’드리

는 방법입니다.

3. '다음에 열심히 하지 뭐' 금지

시험기간만 되면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지 뭐', '기말고사 잘보면 되니까', '그냥 포기!', '다음부터는 진짜 미리미리 할거야.' 제 마음 한켠에서도 늘 들려왔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좀 늦었다고 해서 출발조차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설령 시험 전날까지 아무런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에 미련두지 않고 남은 시간에 '그냥' 하면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만 않으셨음 합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 대학생활에서 깨달은 것들

1.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두려움".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많은 걱정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한다면 내가 들인 시간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닌가? 과거의 저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참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도전을 해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발버둥도 쳐보며 느낀 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남들이 실패라 말해도 그 실패 또한 경험이며, 오히려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분명 그 시기가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실패가 무서워 주저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으니 우선 나아가보라고 말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무서워 제자리 걸음 하는 것보다는 뒷걸음질이라도 발걸음을 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변화,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학교 밖으로 견문 넓히기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 대외활동, 인턴, 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동아리활동을 하며 가장 즐거웠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탁구부 활동을 하며 평생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았고,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업무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의 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양한 삶과 생각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에 필승전략이란 없습니다.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정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한때 '경쟁률'에 겁을 먹었습니다. 사실 취업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경쟁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되거나 안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취할 것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 말할 때 해내는 것이야 말로

멋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 또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경쟁력을, 태도를 만들어 가세요.

• **글을 마치며**

외대에서의 4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별다른 색이 없었던 저에게 색을 찾아주었고, 좋은 인연과 기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만의 색과 인연과 기억을 쌓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남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_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17학번

1. 통학생인 만큼 시간 관리는 더욱더 알차게!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수원에서 통학하며 지냈습니다. 고속버스와 지하철에서 왕복 네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죠. 저는 재수, 삼수를 스케줄 정도만 도움을 받으며 독학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서 오히려 대중교통 안에서 더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을 해서 글을 쓰거나 복잡한 공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단어 암기나 강의 내용 복습하기에는 버스와 지하철만큼 완벽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단순암기는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소음도 있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단어수첩 하나, 혹은 복습노트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통학하는 시간을 아깝지 않게 보냈던 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공과 이중 전공 모두 언어나보니 특히 암기가 생명이어서 제게는 더욱 절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부족한 잠 보충이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전에는)화장, 좋아하는 노래 듣기도 간혹 하기는 했지만, 워낙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 그런데 시간을 쓰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학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도 들다 보니 성취감이 드는 것은 일석이조였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주공강', 즉 강의와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주공강을 더 선호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난 후 쉴 만큼 쉬고 수업 내용을 그날 정리하며 복습하기에는 더욱 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학기까지 저의 가장 중요한 공부 원칙 중 하나가 '그날 수업은 그날 복습 한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날 수업한 강의 자료나 노트를 보면서 교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되짚어보면서, 빨리 말씀하시는 것을 급히 받아 적느라 휘갈겨 쓴 부분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은 꼭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해야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복습 원칙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통학생이었기에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져서, 웬만하면 학교에서 저녁까지 먹고 복습을 충분히 한 뒤에 집으로 가서 쉬는 편이었습니다.

2. 언어는 암기가 생명!

저는 본전공이 네덜란드어, 이중전공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입니다. 두 언어 모두 외대 와서 처음 접해보는 언어였고, 해당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복습과 암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덜란드어와 마인어 모두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배울 필요는 없었지만,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문법을 계속해서 암기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키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학기 중 그날 배운 단어와 문법 내용을 복습하며 암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방학 동안 네어와 마인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다음 학기를 시작하면 그 직전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다 까먹은 상태

가 될 까봐 늦어도 개강 한 달 전부터는 가볍게 지난 학기에 배운 자료들을 중심으로 단어나 문법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야 개강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더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언어가 아닌 역사, 문학, 정치, 경제 등의 분야는 방학 중에 따로 복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업시간에 충분히 집중하고 복습하는 것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제게 아쉬웠던 점은 말하기 실력이 늘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마인어의 경우 문법이 네덜란드어보다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지만, 네덜란드어는 문법이 정말 복잡해서 읽거나 쓰기에는 오히려 편할지 몰라도 말하기,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내 소모임인 어학회나 원어 연극패를 통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어로 뮤지컬을 하는데, 1학년 때 제가 주인공을 맡는 덕분에(?) 네덜란드어 말하기를 정말 빠빠지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많아야 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기의 경우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회를 만드셔서 연습을 해야 천천히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말할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이 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교환학생을 신청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되는 바람에 갈 기회를 놓쳐서..... 여러분들은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3. 레포트 작성, 기본만 알면 기본 이상은 받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쁜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표지와 제목, 학번 이름 등등을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부터가 레포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공이 둘 다 언어학과다보니 상경대나 사회대처럼 레포트를 많이 쓰지는 않았기에 레포트 관련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론-본론-결론 순서대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님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레포트를 쓰든, 서론-본론-결론 순서대로 틀을 잡아서 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교수님이실 수록 표절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글을 갖고 올 경우 꼭,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고, 웬만하면 외부 글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한번 본인의 말로 가다듬고 적는 것을 추천해요. 안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제가 레포트의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깔끔, 서론 본론 결론의 틀, 출처 명시하기 이정도만 지키더라도 기본 이상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출 기한 지키기, 교수님께서 내라고 하신 최소한의 분량은 꼭 쓰기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4. 발표 방법, 준비만 잘하면 떨려도 잘 된다!

마찬가지로 제가 전공 모두 언어학과다보니 다른 대학 학우 분들에 비해 비교적 발표를 적게 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8학기 모두 마친 상태에서 보니 발표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팀플로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 담당, 자료조사 담당, PPT 담당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료 조사를 맡았다면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자료를 모아보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빼게 되더라도 발표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PPT를 담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깔끔하게, 즉 ppt 화면이 글로 가득 찬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면서도 발표할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발표할 내용 모두를 ppt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한 슬라이드에 담을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어야 만족해하시더라고요. 물론 ppt에서 깔끔함은 생명입니다. 너무 너저분하면 교수님은 물론이고 보는 학생들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미적 감각이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pt를 만드는 사람과 발표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이 ppt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고 충분히 알려드려야 발표하는 사람이 무리 없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I이지만 E 성향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발표 담당을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표는 항상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티내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항상 대본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발표를 하다보면 대본대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가는 것이 제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발표를 하다가 길을 잃어도 대본을 보면서 다시 페이스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본을 암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읽고 대략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새겨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야 발표할 때 대본만 바라보면서 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대본만 읽으면서 발표를 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님들이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본을 준비하시더라도 학생들의 눈을 중간 중간 마주치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래야 교수님들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더라도 일부러 천천히, 여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도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덜 긴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되니까요. 외국어로 발표하는 경우 특히 더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하시길 바랍니다. 유창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시험 기간, 영당이 힘으로 버텨야 한다!

성격상 시험기간에는 시험기간 대로 바쁘게 보내지만, 저는 매 시간이 시험 준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그날 배운 것은 꼭 그날 복습하고, 시험기간에는 복습하며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최소 3회독은 하고 시험에 임해야 마음이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3주 전부터 더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3주일 전에 1회독, 2주일 전에 2회독, 1주일 전에 3회독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리모델링되어서 아주 빠까뻠쩍(?) 하지만, 저는 그전의 낡은 도서관도 좋아해서 시험기간에 그 낡은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맛으로 시험기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 주말에는 특히 오전 9시까지 도서관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맛으로(?) 시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밤을 새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고난 후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하루에 시험을 2개 이상 봐야 하거나 한 과목을 보더라도 시험 범위가 방대할 경우 종종 밤을 새고 시험을 보러간 적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버스를 타서 평소에는 버스에 매우 익숙하던 제가 토를 한 적도 있긴 했지만, 제가 만족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마음이 편해서 차라리 잠을 안자는 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야 여러분의 뇌 속에 공부한 내용들이 저장될 수 있으니 잠은 조금이라도 자고 시험보세요 여러분! 언어 관련 시험일 경우 암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암기를 했지만, 본인의 생각을 쓰는 형식의 교양 과목일 경우 오히려 대략적인 내용만 암기해두고 잠을 푹 자고나서 시험을 보는 편이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종류의 시험일 경우 꼭! 잠은 충분히 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우 분들은 보통 통학을 고려해서 공강인 날을 꼭 만들거나 우주공강을 기피했는데, 저 같은 경우 한 학기 시간표를 짜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강이 없더라도 하루에 2과목 이상 넣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아리나 과 소모임,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오는 경우가 많았어서 공강을 없애고 하루에 1~2과목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히 1교시를 많이 싫어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1교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복습할 시간도, 수업 외 활동을 할 시간도 충분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교시가 있는데 통학생일 경우, 딱 출근 시간과 겹쳐서 통학을 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 채 힘들게 서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6시 30분에 출발하면 오히려 아직 출근 시간 전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도 앉을 자리가 충분히 있고 도로가 막히지도 않아서 8시 30분 이전에 도착해서 미리 강의실에 들어가 하루 스케줄을 계획하거나 통학하느라 지친 몸을 쉬게 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6.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자

스트레스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공부든, 동아리든,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니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곰씹다보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바로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일단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단 복잡한 머리와 마음속을 한결 식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너무 집착하면서 '오아 난 너무 힘들어!'라고 붙들고 있다 보면 해결도 안 되고, 저만 속상하게 되어서 그냥 '이런 스트레스가 생겼네' 하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를 실컷 듣거나 좋아하는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오면 뭔가 가슴 한 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취미 하나를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될 때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것, 정말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힘들게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한두 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말하는 것 자체가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힘든 것을 말 못하는 성격이지만, 정말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계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제가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굳이 자세하게 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만, 이렇게 보면 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어 정말 따듯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센터에 꼭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흘려보내세요. 갖고 있으면 여러분만 굶습니다!

7. 동아리, 청춘이니까 맘껏 해라!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십대 동안 공부하느라, 혹은 부모님의 감시(?) 하에 있느라 못 봤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들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는 분야라서 잘 못한다고 시도도 안 해보지 말고, 일단 질러보세요. 청춘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전거 해외탐방 동아리인 만리행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국내에서 가볍게, 혹은 마음먹고 1박 2일 코스로 자전거를 타면서 외대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방방곡곡, 혹은 서울을 벗어나 인천이나 남한산성 등 다양한 곳으로 다니며 맑은 풍경과 함께 동아리원 사람들과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방학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원정을 갔습니다. 물론 매 방학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미리 사전조사도 하고, 학술 주제를 정해서 그 나라에 대한 공부도 하고, 훈련도 조금 하고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오키나와로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가보고 이번이 두 번째 해외여행 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생활하며 자전거로 일주하는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어를 할 줄 몰랐기에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니 저 스스로도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자전거로 해외를 일주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뮤지컬을 알려주신 이후로,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꼭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소위 '범생이'였기 때문에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노래방을 가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던 제가,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겠다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일반인 뮤지컬 동호회를 찾아 들어가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뮤지컬 동아리 '라운'에 들어갔습니다. 외대에 예술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공자가 아니어서 더 재미있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라운에서 배우도, 의상팀도, 조명팀도, 연출팀도 해보면서 이전에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값진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웠습니다. 물론 한 작품 전체를 준비하기 때문에 방학 내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제 실력이 되지 않아, 혹은 다른 동아리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공연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배우이든, 연출이든, 의상팀이든, 조명팀이든 그렇게 뿌듯하고 짜릿할 수 없어요. 모두가 빛나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8. 학생회를 하면 사회에 눈을 뜬다!

저는 과 혹은 단과대학 학생회를 한 적은 없지만, '동아리 연합회'라는 기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행정 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분들, 혹은 관련 외부 업체 직원 분들과도 직접 마주치면서 일을 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에 들어가자마자 18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동연 주체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새터 관련 업체와 직접 회의도 해보고, 새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없이 회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서류를 처리하면서 유용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에서 체육분과장, 공연분과장, 복지국장으로 2 년 여간 일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은 국원으로 일하면서 동아리 연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운영위원회로서 일하다 보니 전반적인 교내 서류 처리 과정을 알게 되고, 특히 공연 분과장이나 복지국장으로 일할 때 외부 업체와 연락하고 회의할 경우가 많았어서 학교 내의 직원 분들이 아닌 사회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되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아닌 공식적인 업무, 즉 일이다 보니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동아리 연합회 사람들과 일하면서 친분도 생기고, 실용적인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쌓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깊이있는 대학생살이 되도록

전해린_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17학번

A+ 공부법 관련 에세이 제의를 받았을 때 5년 동안의 대학 생활의 보람을 느껴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큼니다. 학부 수업에 성실히 임하였지만, 저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에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학부 수업에 충실했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양가적인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대학 생활의 후반부에 진로를 변경한 학우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저의 진로 경험과 대학 생활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1. 학점 관리

(1) 학기 · 학년별 시간표 구성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 과목의 수업 방식과 시험이 자신과 맞는지, 한 학기 동안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과목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게 중요한 수업 선택 기준 중 하나는 시험 일정이었습니다. 강의평을 보고 시험의 부담을 고려해 그 학기 시간표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요일에 시험 부담이 큰 과목이 몰려있는 시간표는 되도록 피했습니다.

필수 과목은 되도록 그 학년에 수강하였지만,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는 과목은 1학년 때보다는 대학 생활과 학과 공부 방식에 익숙해진 후에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본 전공에서 경제학 과목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1, 2학년 초보다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대학생활의 후반부에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필수 과목을 미루는 것은 고학년이 되어서 힘들겠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한 두과목은 준비된 후에 수강하여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나의 진로와 맞는 수업 찾아가기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런 수업은 본 전공인 LD 전공에서 수강한 ODA 수업, 국제법, 그리고 멕시코에 다녀와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목표를 가지게 된 후에 자선으로 들었던 국가리더전공 수업들이었습니다. 학점을 받기 쉬운 과목들만을 선택하게 되어 자칫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수업들로 한 학기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수업은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전의 의미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3) 시험 준비

수업 중 교수님의 특성상 말이 빠르시거나 중요한 부분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이패드 녹음 필기 기능을 활용해 복습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논술형 답안지 작성이 낯설기만 해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적어 무작정 암기하여 시험 답안을 썼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논술형 답안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전공이었던 LD 전공에서는 논술형 문제가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것에 더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제된 글로 서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논술형 글을 써보는 것은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에 교수님들께 모범 답안의 목차를 여쭙보기도 하고, 주전공 국제법 수업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모범 논술형 답안을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법학 답안의 경우 소목차 설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소목차로도 관련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 주제의 답안을 작성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학년 초기에는 논술형 답안지 작성법 자체를 교수님께 여쭙보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였지만, 저학년이기에 여쭙볼 수 있고 교수님들께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답안지 작성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모를 때는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정중히 여쭙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원어 수업

본 전공에서 제게 부담이 되었던 과목들의 공통점은 원어 수업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영어로 토론하고 즉석에서 질문하는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전공의 필수 과목들의 대부분은 원어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들은 미리 준비해가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즉석에서 원어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발표내용과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여 관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참여 점수가 많이 있는 수업에 부담이 된다면 그날 수업 내용의 공통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라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중 전공 - 스페인어과 수업

(1) 어학연수 전 스페인어과 학점관리

본래 어문과 수업은 현지에서 살다가 온 학우들,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우들과 같이 어문에 특출난 학우들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3학년에 들어가던 시기 휴학을 하고 멕시코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스페인어 수업이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학년 문법 수업, 작문수업과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의 수업 특성을 잘 파악해 수강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과 초급 중급 문법 및 작문 수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교과서에 기반하여 중간, 기말문제를 출제하시고 주어진 단어, 문법 사항,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숙지하면 저학년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변 동기들, 선배들, 강의평 등을 통해서 시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어문과의 공통적인 특징이겠지만, 어문과는 모든 시험에서 단어 암기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문법, 작문 등의 과목에서는 항상 중간 기말고사 범위마다 작은 단어장을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시험전날 많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제게 힘들었고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2주 전부터라도 하루 30분을 내어 단어장에 단어를 정리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과정을 쌓아보면 오히려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어학연수에서의 목표 달성하기

저에게 멕시코로의 8개월의 어학연수에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DELE B2 자격증을 취득해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난민, 빈곤 관련 NGO 단체에서 장기 봉사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 전공과 스페인어과 졸업 요건에 DELE B2, FLEX 점수가 각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스페인어 실력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멕시코로 어학연수를 선택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DELE 취득이 쉬울 정도의 언어

실력이 단기간에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의 UNAM 대학의 CEPE 어학당을 등록하여 다니면서도 따로 DELE 시험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3개월 만에 DELE를 취득해야 했기 때문에 현지 친구들에게 회화와 작문 공부 도움을 받았고, 집에서는 최대한 현지 매체를 많이 접하기 위해 라디오, TV 채널 등을 항상 틀어놓으며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3개월 후 DELE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본래 희망한 진로였던 난민, 빈곤 관련 국제 NGO 단체들에 메일을 보냈고 좋은 기회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Al Otro Lado라는 NGO 단체에서 3개월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중남미권 난민 신청자들의 사연을 미국 변호사에게 통역하고 국경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기간 동안 자신이 느끼고 배우는 결과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큼 나올 것입니다.

3. 진로를 위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어학연수 전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를 위해서 본전공에서 KOICA 대학생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ODA 수업을 2학기 동안 수강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수업은 KOICA ODA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제외하고는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공수업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선택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치외교학과나 LD 학부에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수업을 자선으로라도 수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KOICA ODA 자격증의 경우, 년도나 구체적인 사업 등 세세한 내용까지 시험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기본편, 심화편 책을 정리하여 꼼꼼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 NGO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국제개발협력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다 구체적이지만, 조금은 우회하는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감히 현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론에서 배웠던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느낀 국제개발협력의 차이는 컸기 때문입니다.

4. 글을 마치며

글을 쓰면서 저의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고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학점에 대한 압박을 가지면서 수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관련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봉사 및 대외활동을 하면서 졸업을 앞둔 지금 학점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에 대학 생활의 어려움과 제약이 클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분이 자신에게만큼은 의미 있는 대학 생활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p>학점 관리도 전략적으로!</p>
	<p>정시영_사범대학 프랑수어교육과 18학번</p>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프랑수어교육과 18학번 정시영입니다. 2022년 2월 졸업과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학우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학점 관리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결정하였는데요. 부디 저의 과거가 학우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미래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학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

“학점은 3점 중후반대만 유지하면 충분하다!”는 말. 학우 여러분께서도 학부생활을 하며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문장에 대한 진위여부는 그 누구도 가릴 수 없겠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높은 학점이 여러분께 어떠한 자격을 보장해주진 않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 학점에 발목 잡혀 좌절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은 제게 ‘장학금이나 교내활동 참여, 대학원 선택’등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학업 몰입의 성과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 한 학우에게는 보다 넓은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고, 진로를 명확히 한 학우에게는 이중전공 결정이나 교환프로그램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그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는 경험은 내적 성숙에도 많이 기여할 것입니다. 고로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붙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길 바랍니다.

< 학점 관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

공부에 왕도는 없 않지만, 저는 학점 관리를 위해 가능한 전략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1. 수강 신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하는 시기에, 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강의평과 강의계획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습 패턴이나 학습적 장점을 바탕으로 수강할 강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강의계획서를 읽고 해당 과목이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가를 판별했습니다. 아무리 ‘꿀강의’라 할지라도 본인의 관심과 상이하다면, 배움에 대한 의욕도 줄어들고 수업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강하고 싶은 강의들을 여러 개 선별해둔 이후에는 해당 강의의 수업 진행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강의가 일방적 강의형인지, 참여 토론형인지, 팀프로젝트형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의 평가는 어떻게, 어떤 비율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이전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의 강의평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교수님의 'xx'과목을 수강하길 원한다면, A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xx 과목은 물론 yy 과목, zz 과목까지 모든 수강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타 학우가 남긴 수강평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이 다르고, 효과성을 느끼는 강의 방식이 다르기에, 수강평을 살펴볼 때는 '그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과 과제 성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낮은 가리는 성향이 심하지만 암기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보통 일방적 교수법을 취하는 강의 중 평가에서 지필고사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주로 골라 들었습니다.

2. 평소 공부하는 방법?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저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 만큼은 온전히 강의에 몰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언어 수업이든 비언어 수업이든 간에 '교수님이 스택트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저는 가급적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기 쉬운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집중력을 쉽게 잃는 경향이 있어, 의식적으로 '딴 짓하지 못 하는 환경'을 조성해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수업 시간엔 온전히 학습에 임하게 되고, 교수님의 제스처 등을 보며 학습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특히 중요한가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때는 가급적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받아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강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교수님의 말씀을 토씨하나 안 빠뜨리고 적으려 노력하기보단 자신만의 언어로 적절히 핵심 요약하여 기술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기 습관은 학습 당시에는 이해를 수월히 하고, 복습 때는 빠르게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시험기간에 공부하는 방법?

저는 보통 시험주간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암기가 우선되는 과목은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 정리해둔 메모들과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회독하여 가급적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학기 시작 전 파악해둔 교수님의 시험 출제 경향 및 스타일을 고려하여 '시험 범위 중 어떤 내용이 높은 배점으로 출제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고,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이해나 응용이 우선되는 과목, 특히 언어 강의의 경우는 시험기간에 특히 집중하기보단 평소 수업에서 이해했던 바를 상기시키며 핵심적 표현이나 원리만을 가볍게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공 언어 수업의 경우 중요 표현이나 문법을 적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고, 부전공 행정학 수업의 경우 배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미리 생각해본 것 같습니다.

< 공부하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한 전략이다 >

아무리 학점 관리에 열을 다한다고 해서, 다른 경험마저 제쳐두고 공부에만 임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길어질 뿐 집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강의를 들을 때와 과제를 하는 그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엔 공부에만 집착하기 보단 즐거운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게임을 해도 좋고, 여행을 해도 좋습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해도, 교내 학회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공부 외의 다양한 경험에도 시간을 투자하며, 몸과 정신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이는 학습 능력 증진은 물론 우리의 인생을 일궈나가는데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글이 어느 학우 분의 눈에, 마음에 담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곱씹으신 학우 여러분만큼은 부디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후회 없고 찬란한 학부생활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는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운휘_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7학번

1. 전공 공부, 그 시작은 암기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공과 같은 언어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인,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암기'라는 것입니다.

언어 공부를 세 가지 단계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의 배치를 하는 데 앞서서 단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이든, 전공책 문장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이든간에 무조건 최대한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어를 무작정 머리에 넣는다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세르비아어로 student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자신이 영어로 student라는 단어가 학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쉽게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얼렁뚱땅하게라도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zemlja라는 단어는 세르비아어로 나라,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젼야'라고 발음되므로 '젼이 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연결하여 연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처음에는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무작정 외웠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필요한 상황에서 어이없으면서도 고맙게도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문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법도 격에 따른 단어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입니다. 이렇게 문법의 내용을 암기하면 문법 파악이 기반이 되는 세 번째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단어가 있고 간단하게라도 문법정보를 암기했다면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버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장을 외우는 단계에서 분명 또 새로운 단어나 문법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두뇌사전에 새로운 데이터로 보관하면 될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단어를 암기하고 두 번째는 문법지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문장을 암기하는 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다보면 언어를 구사하는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 교양 공부의 능률은 흥미로부터

일의 능률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교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에게 도움은 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드라마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본도 찾아볼 만큼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희곡과 시나리오 작법'이라는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스스로 스토리를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과정도 겪고, 저의 작품이나 다른 학우분들의 작품을 같이 리딩하는 수업을 하면서 작은 흥미로 시작한 수업이 저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마다 자리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뿐만 아니라, 필수교양이라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흥미 없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교과서의 글자만 형식적으로 들어올 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자신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흥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미네르바 교양'과 같은 경우가 다소 딱딱하게 여겨지면서 공부하는 데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본 친구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고등학교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오랜만에 만난 것에서 오는 반가움을 이용해 서서히 흥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학습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양공부에 있어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준비와 마음가짐을 먹고 자라는 발표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준비'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더분한 이야기들이 머리와 귓속으로 흩어져서 들어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결국 발표자 입장에서도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의미한 시간으로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은 쉽게 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쉽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해서 최대한 아이컨택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암기를 할 때에도 앞의 말과 뒤의 말에 연관성을 지으면서 외워야 막힘없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와 같은 남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자신이 준비한만큼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발표하는 일이 어렵다면 마음가짐을 바꾸어보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발표를 할 때 긴장을 많이 해서 입이 닳도록 외웠지만 순간 백지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고 간혹가다만 긴장하고 백지상태가 되는 일이 있어서 매일 실수하는 것보다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긴장할 때와 긴장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마음가짐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을 때는 해당 발표를 잘해야한다는 부담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휩싸여 실수가 나왔습니다. 반면, 긴장하지 않았을 때는 잘해야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해왔는데 상대방도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력한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허탈함을 극복하고 싶다면 어쩌면 단순할지도

모르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이와 연관 지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 시험 준비는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시험 준비는 개강부터 시험을 보기 전까지 계속 복습할 것이 아니라면,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고 시험 보는 과목 수에 따라 2-3주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르게 공부를 해도 결국 머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용을 지워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차라리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시험보기 전까지 한 과목당 전체적으로 적어도 3번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보기 바로 직전에도 전체적으로 훑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준비에 있어서 공부과정은 저의 경우에는 암기과목이 많아서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할 일이 있다면 태블릿이나 노트를 이용해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파악했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반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자기만의 해충제로 스트레스 벌레 제거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치명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공부하느니 하지 않고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 뒤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즉시 해소하거나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상황에 근접하다고 느껴진다면 쌓이기 전에 해소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생활패턴에 따라 방법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전에는 노래방에 가서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했었고, 코로나 후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귀여운 동물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옛날에 좋은 날에 좋은 곳에 가서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정신만 잠깐 그곳에 다녀오고는 다시 공부를 하면 기분 좋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삭히지 말고 푸는 활동을 한다면 자신의 기분을 적절히 유지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A+학생들의 A+공부비법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우 02450)
전화 02)2173-2127, 2761
팩스 02)2173-2617
홈페이지 <http://iei.hufs.ac.kr/>
이메일 ctl@hufs.ac.kr



교육혁신원(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 ◆ <http://iei.hufs.ac.kr/>
-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교수학습개발원 304호
TEL. 02-2173-2127, 2761 / FAX. 02-2173-2617